우려했던 '트윈데믹' 현실이 됐다

12월 둘째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역대 최고치 코로나19도 최근 일평균 500~600명대로 확산 중

제주지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치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코로 영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나19 확산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 는 등 '트윈데믹' (2개 질병 동시 유행)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이 요 21.5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 구되고 있다.

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지난 넘어섰다. 49주에 이어 다시 한번 최고치를 보이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취재동향 보고하라는 도정 지침은 반민주적" 제주도기자협회 성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언론사 취재 동 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을 '도 지사 요청사항'으로 모든 부서에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도기자협회 가 해당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 게 요구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18일 성명서 를 내고 "제주도의 지침은 도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공적 기능 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조치"라 고 비판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역대 도정에 서도 취재 동향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 며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 선 안 될 지침 때문에 제주도정과 언론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 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도정 책임자 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자 와의 소통을 차단해 도민의 알 권 보고체계 운영'지침을 즉각 파기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 께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이는 질병관리청이 9월 16일 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

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은 올해 45~49주 기간 동안 평균 고 있으며 특히 50주에는 전국 인 제주도는 올해 50주(12월 4~10 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의 2배를

제주도는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같은 개인위생 (4.9명)의 12배 이상인 63.3명을 기 수칙 준수와 함께 임산부와 어린 이, 만 60세 이상 등 면역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포함한 미접종자는 빠 른 시일 내에 예방 접종 받을 것을 강조했다.

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취약시설, 면역저 하자 등 고위험군(9000여명)을 포 함한 약 26만1000명을 대상으로 제 주도 자체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은 14만 0.11%보다 낮다. 7200여명으로, 접종률은 72.8%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도내에서는 605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발생 현황은 총

3987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주 대 비 574명이 증가한 수치로, 도내에 서는 일평균 600명대에 가까운 인 또한 올해 겨울철 코로나19와 인 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있다.

>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95세 확 진자 A씨는 지난 16일 입원치료 중 17일 숨졌다. 앞서 82세 B씨는 지난 14일에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중 15일 사망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6%로 전국

도내에서 격리중인 인원은 3691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도 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4명이다. 18 일 오후 5시 기준 도내에서는 489 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5만 6884명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날씨는 추워도··· "눈이 좋아요" 눈이 내린 17일 제주시 아흔아홉골 입구에서 시민들이 눈놀이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건설현장 갈취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 "내년 6월 25일까지 배후까지 검거에 총력전"

리를 막을 수 있는 '언론 취재사안 제주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 ·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집단 위력을 과 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금품갈취 행위와 특정 집단 채용 또는 건설 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

한 보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하면 신속대응팀으로 빠르게 조처 를 하며 제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

장으로 한 종합대응팀은 주동자와 배후까지 검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건설 현 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통할 수 있 도록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토 교통부 '채용 질서 신고센터'나 또 각 경찰서는 112신고를 접수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 부지 확정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신축키로 제주도와 합의 연동주민센터도 같은 곳으로 이전… 경계 조정 예정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이하 제주소 를 짓기로 확정됐다. 방본부) 신청사가 제주시 연동 설 도로관리과 부지에 들어선다.

18일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제 과 부지의 전체 면적은 6742㎡다. 주자치도와 협의 끝에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

업소란 이름의 제주도 산하기관이 따라 제주도 본청으로 이관됐다. 신청사를 짓기로 결론냈다. 현재 도로관리과에는 23명(3개팀) 이 근무한다.

쓰고 있는 건물을 허물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제주소방본부 신청 사가 지어져도 도로관리과는 현재 자리를 유지한다.

건립할 소방 신청사의 일부 층을 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로관리과가 쓰는 방안과 지금의 있다"고 말했다.

도로관리과로 이전해 단독 신청사 다"고 말했다.

제주소방본부와 연동주민센터는 문대여성문화센터 바로 옆 제주도 협의를 거쳐 양측의 신청사 부지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로관리

당초 제주소방본부는 제주시 중 산간 지역 한 사유지를 신청사 후 보지로 고려했었다. 그러나 치솟은 제주소방본부 신청사가 들어설 땅값에 토지 매입비로 막대한 예산 제주도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사 이 들어가는 점과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하는 기 었다가 지난 2016년 조직 개편에 관의 특성을 고려해 시내 중심가에

또 도로관리과 부지가 도유지여 서 소방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제주소방본부는 도로관리과가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소방본부 청사는 예산·부지 확보 문제로 지금껏 재건축되지 않 았다가 이번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 부지 문제를 풀면서 신청사 건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투자심 부지에 도로관리과를 수용할 별도 사, 건축 허가 등 남은 행정절차를 의 건물을 짓는 방안이 고려되고 고려하면 2025년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확한 도로관리과 부지에는 연동주민 신청사 건립 규모와 예산 등은 연 센터도 함께 들어선다. 연동지구대 동주민센터와의 부지 경계 협의 등 바로 옆에 위치한 연동주민센터는 이 끝나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

50대 여 집에서 숨진채 발견… 경찰 수사중

50대 여성이 주택에서 숨진 채 발 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면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라동의 한 주택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흘리며 쓰러져 있다 가족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18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 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 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씨는 집 안에서 머리에 피를 를 추적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새벽시간 비닐하우스 화재

나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했다. 18일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5분쯤 제주

시 한경면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 이 나 3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새벽에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하우 스 일부와 감귤나무 등이 불에 타 며 소방서 추산 547만원의 재산 피 해가 발생했다. 김도영기자





탐나는봉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학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리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신교병 03-0182-2020-3)

❖ 제주한라농원감귤류묘목전시판매장 개정Ⅲ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 전예약 탐빛1호, 선킹, 주문생산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의제주한라농원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대표: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사라향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카라향
- 천혜향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일남일호 • 유래(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064-733-7005, 010-6677-5753